

코로나 대유행에 다시 힘받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민주당 '최소 90%+ α' 추진

지도부 내에서도 확대 목소리

당론 결정엔 신용카드 캐시백 철회

코로나 19 4차 대유행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다시 거세지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당정이 합의했던 재난지원금 대상(소득 하위 80%)을 '최소 90% 이상

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역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강화된 방역수칙을 함께 감내하는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안으로 최고위원회를 열어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문제를 지난 7일 정책의원총회에 부쳤으나 매듭짓지 못했고,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도부 내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송영길 대표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을 소득 하위 80%보다는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1~5월 세수가 작년 대비 43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안을 짜면서 올해 예상되는 31조5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곳간이 벌써 12조원 넘게 불어난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할 여력이 생겼다는 것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힘과 합의가 되면 전국민 지급이 될 것이고, 합의가 안 돼도 최소 90%+ α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자연스럽게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캐시백 정책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자를 향한 위로금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캐시백 정책 배정 예산 1조1천억원이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여파를 고려,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정당국은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추가 세수확보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6000억원 정도의 손실보상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거리두기 4단계는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영업을 제한하라는 것으로,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며 "이 부분은 현재 제출된 추경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 추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12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공정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권 이후, 한국 정치의 미래를 찾는다' 주제의 세미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화상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궤도 벗어난 정치...공정·상식으로 바로 세워야”

광주서 열린 지지 모임 세미나 윤석열 축하 영상 메시지 보내 김종배 전 국회의원 등 참석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2일 "이제라도 국민 궤도를 벗어난 정치를 공정과 상식으로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지 모임 '공정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보낸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정권 4년간 공정과 상식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개개인의 삶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분

열과 이념만 남았다"면서 "진영 논리가 우리 국민들의 아픔과 원성을 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념은 국민을 이길 수 없고, 정치는 국민을 떠나 존립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출발하고, 국민의 상식에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공유되는 고견과 비전들이 공정사회를 향한 이정표가 되고 한국정치 발전을 앞당기는 의미 있는 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문재인 정권 이후, 한국 정치의 미래를 찾는다:공정사회와 호남의 선택'을 주제로 열렸으며, 윤 전 총장의 광주 지지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1980년 5·18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 지도자로 활동했던 '5·18 사형수' 김종배 전 국회의원이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김 전 의원은 격려사에서 "윤 전 총장은 보수와 진보, 어느 진영에도 몸을 실지 않고 합리적인 진보, 중도, 개혁보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바람직한 자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진영논리를 떠난 윤 전 총장에게 호남에서 30%의 지지를 준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면서 "호남의 적극적인 인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김 전 의원과 소통하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고리로 중도·탈문(脫文) 진보 세력으로서의 외연 확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주 경선 참여 독려”는 타당 경선 개입

민주당, 김재원·이준석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참여 독려'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를 거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이 경선인단 신청에 특정 후보 배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등 정치 상의가 없는 언행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며 "명백한 경선 개입이자 상식 이하의 언행, 악의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맹비난했다.

백 최고위원은 "정치에서 서로 비판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는데 김 최고위원은 (타당 경선 개입) 실행까지 했다"면서 "이를 두둔하는 것을 넘어 '잠룡' 운운하는 이준석 대표의 행동은 가관이며 구태정치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김 최고위원이 민주당 경선 인단으로 참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편으로는

참 기쁘고 감사하다"며 비꼬았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를 정말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정치를 불신으로 몰아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최소한 제1야당의 지도부라면 품격있게 정치하자"고 쓰아붙였다.

이동학 청년최고위원도 모두발언 시작에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경선에서 손 떼십시오"라고 말했다. 우원식의 의원 역시 SNS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비열한 짓에 동참하는 이준석 대표를 보고 참으로 실망이 금할 수 없다"며 "제1야당의 대표가 되어 이렇게 상대 당의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잔치를 노골적으로 훼방하고, 갈등의 문을 열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 대표를 겨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상대를 왕따시키는 말 잘하는 악동 같은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이용빈 '부동산 거래신고 등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광산갑) 국회의원은 1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신고받은 사항을 토대로 실거래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등에 대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실거래공개시스템은 부동산 시세 추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이를 악용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계약을 신고하여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를 계약체결 후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제

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신고 시기의 변경을 통해 실제 거래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지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일으키는 일부 투기세력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h3>장성토지 (분양 매매)</h3> <p>광주에서 20분 (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토지평수 (150평, 200평, 500평, 1800평)</p> <p>★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p> <p>010-8660-9801</p>	<h3>상가매매 (상무지구)</h3> <p>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3천 (용 4억)</p> <p>2) 월수익 300만, (보 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 영화관 앞)</p> <p>6층(60평) 매가4억5천(보2천 200), 용 2억6천 7층(40평) 매가 2억3천(보1천 100), 용 9천</p> <p>010-6670-9800</p>
---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